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8.12)

1. 일본 화이트국가 제외 관련

□ [한국 정부 동향]

-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‘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’을 발표함.¹⁾
- o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화이트국가인 ‘가’ 지역을 ‘가의1’과 ‘가의2’로 세분화하여, 기존 화이트국가는 ‘가의1’로, 일본은 ‘가의2’로 분류하였음.²⁾
- *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레짐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체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며,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됨.

□ [일본 정부 동향]³⁾

-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화이트국가에서 자국이 배제된 것과 관련,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및 영향 분석을 실시할 것으로 나타남.
- o NHK는 일본의 대한국 수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, 2018년 기준 수입 총액은 약 3조 5,500억엔 정도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(5,440억엔), 철강(3,382억엔),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(2,467억엔)이라고 보도함.
- * 그 외에도 유기화합물(1,959억엔), 비철금속(1,574억엔), 금속제품(1,134억엔), 자동차부품(785억엔) 등이 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임.
- o 일본의 수입국 중 규모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, 미국, 오스트리아,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5번째로 큰 국가임.

1) 산업통상자원부, 「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」 웹사이트 : http://www.motie.go.kr/motie/ne/motienewse/Photonews/bbs/bbsView.do?bbs_seq_n=23212&bbs_cd_n=10
(검색일 : 2019. 8. 12)

2) 「정부,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... 日조치에 ‘맞대응」 『연합뉴스』 (2019. 8. 12).

3) 「韓国 日本を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から除外 来月から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8. 12).

- 한편 외무성 한 간부는 “한국의 조치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,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뒤에 대응하겠다.” 라고 하였음. 또다른 간부는 “당장 큰 영향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,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볼 것” 이라고 발언함.
- 일본 외무성 부대신인 사토 마사히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“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가 일본의 수출관리제도 재검토(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)의 대항조치라면 WTO 협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” 라고 기록하였음.⁴⁾
- o 사토 부대신은 어떤 이유로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였는지 세부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하면서, 별로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음.
- 한편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, 일본 언론 매체는 “협의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” 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, 보도함.⁵⁾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일본의 각 언론들은 속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“보복조치” 혹은 “대항조치” 라고 평가하고 있음.⁶⁾
- 또한 일본의 일부 언론은 “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” 라고 지금까지 주장한 한국 정부의 논리가 이번 조치(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)의 시행으로 성립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.⁷⁾

4) 「日本政府、韓国の「報復措置」との見方」 『日本経済新聞電子版』 (2019. 8. 12).

5) 각주 4와 출처 동일.

6) 「韓国政府、日本を「ホワイト国」から除外 報復措置か」 『朝日新聞速報ニュース』 (2019. 8. 12) 및 「韓国が「報復措置」…優遇対象国から日本を除外」 『読売新聞速報ニュース』 (2019. 8. 12) 및 「韓国、日本を優遇対象から除外 9月ごろから」 『産経新聞速報ニュース』 (2019. 8. 12).

7) 각주 4와 동일 출처